

佛像의 起源

—‘菩薩’에서 ‘佛’로—

李 柱 亨

(서울大 助敎授)

I

불상의 기원 문제는 초기 불교미술 연구의 중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소위 無佛像시대를 거쳐 인간적인 모습의 불상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일찍부터 많은 미술사학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금세기초 프랑스 학자 알프레드 푸셰(Alfred Foucher)는 기원전 1~2세기 지금 파키스탄 서북부의 간다라(Gandhāra)지방에서 그리이스계미술의 영향 아래 불상이 비로소 만들어졌다는 학설을 주창한 바 있다(도 1).¹⁾ 이후 Foucher의 간다라미술 연대관은 후대 학자들에 의해 수정되어, 간다라에서 불상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쿠산시대 카니쉬카(Kaniṣka)王 紀元 조금 이전인 대략 기원 후 1~2세기 경으로 간주되고 있다.²⁾ 한편 1920년대에 印度학자 아난다 쿠마라스와미(Ananda Coomaraswamy)는 간다라에서 불상들이 비로소 나타나는 것과 비슷한 시기에 北인도의 마투라(Mathurā)지역에서 역시 佛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 상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것을 주목했다(도 2).³⁾ 그리고 그는 이 상들이 간다라의 불상들과는 전혀 다른 형식과 양식으로 되어 있으며 인도 고유의 조상 전통에 기초하고 있었던 것을 입증했다. 그 이래 釋迦牟尼佛의 像은 간다라와 마투라의 양대 지역에서 불교사적으로 비슷한 요인에 의거하여 동시에, 그러나 서로 다른 미술전통 속에서 독자적으로 생겨났다는 것이 일반적인, 또한 다소 편리한 결론이었다.⁴⁾ 그러나 불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보다 커다란 문제는 그와 바로 연결되는 또 다른 문제, 즉 불상이 출현하기 이전 無佛像시대의 성격과 의미는 과연

1) A. Foucher, "The Greek Origin of the Image of the Buddha", 자신의 *The Beginnings of Buddhist Art* (Paris, 1917), pp.111-37, 특히 127-30; Foucher, *L'Art gréco-bouddhique de Gandhāra* (Paris, 1905-1922), vol. 2, pp.401-596.

2) 高田修, 『佛像の起源』(東京, 1967), pp.73-96, 209-56; R. Morris, "Prolegomena to a Study of Gandhara Art," University of Chicago 박사학위 논문(1983) 등을 참고할 것.

3) A. K. Coomaraswamy, "The Indian Origin of the Buddha Image,"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46(1926), pp.165-70; "The Origin of the Buddha Image," *Art Bulletin* 9-4(1927), pp.287-329; *History of Indian and Indonesian Art* (1927; Dover의 1965년 複刻本), pp.41-71.

4) 다시 말하면, 헬레니즘의 영향력이 이 동방에까지 뻗었던 것을 귀중히 여기는 유럽의 일부 학자들의 기대에나 인도인들의 민족적 자존심, 양 쪽에 다 만족스러운 결론이었던 것이다.

무엇인가 하는 문제와 더불어 학자들간에 끊임없는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오고 있다.⁵⁾

그런데 마투라의 초기 불상으로 여겨지는 대부분의 상들에 'Bodhisattva', 즉 '菩薩'이라는 銘文이 있는 사실은 미술사학자나 불교학자들 사이에 조그마한 의문으로 남아 있었다. 예를 들어 쿠산왕조 카니쉬카王 이전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되는 잘 알려진 카트라(Katra) 출토 좌상(도 3)에는 다음과 같은 명문이 새겨져 있는 것이다.

Budharakhitasa mātare Amohāāsiye Bodhisaco paṭiṭhāpito
sāhā mātāpitihi sake vihāre
savasatvānā[m] hitasukhāye⁶⁾

[Budharakhita(Buddharakṣita)의 母, Amohāāsi(Amoghādāsi)는 부모와 함께 자신의 精舍(vihāra)에 Bodhisattva의 像을 세운다. 모든 중생의 幸福과 安寧을 위해]

서방학자들간에 종종 이 의문에 대한 편리한 해답은 불교사적으로 비교적 이른시기라고 볼 수 있는 불상출현기에 Bodhisattva와 Buddha, 즉 菩薩과 佛이라는 두 호칭이 釋迦牟尼佛을 가리키는 말로서 별 구분없이 쓰였고 따라서 混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⁷⁾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와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의문들이 그대로 남는다. 즉, 어째서 마투라상의 명문에서 카니쉬카기원 제 1세기 중반경부터⁸⁾ 'Bodhisattva'라는 말

5) 근래에 존 헌팅턴(John Huntington)과 수잔 헌팅턴(Susan Huntington)은 초기불교미술에 있어서 佛像조성에 대한 禁制가 과연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강한 의문을 표시하면서 無佛像時代의 성격에 대한 再考를 주장하여 학계에 적지않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J. Huntington, "The Origin of the Buddha Image: Early Image Tradition and the Concept of Buddhadarśanapūnya," A. K. Narain 編, *Studies in Buddhist Art of South Asia* (New Delhi, 1985), pp.23-58; S. Huntington, *The Art of Ancient India, Buddhist, Hindu, Jain* (New York, 1985), pp.70-73, 97-100, 113-15, 119-23; S. Huntington, "Early Buddhist Art and the Theory of Aniconism," *Art Journal* 49-4(1990), pp.401-08. Huntington 부부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필자는 이전에 간단한 논평을 가한 바 있다: 「近刊의 印度美術史 概說書 二種—수잔 헌팅턴과 J. C. 하알의 新作—」, 『美術資料』 48(1991), pp.101-10.

6) H. Lüders, *Mathura Inscriptions* (Göttingen), pp.30-31 (no. 1).

7) 예를 들어 J. E. van Lohuizen-de Leeuw, *The "Scythian" Period* (Leiden, 1949), pp.177-79; G. Schopen, "The Inscription on the Kuṣān Image of Amitābha and the Character of the Early Mahāyāna in India,"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Studies* 10-2(1987), p.118.

8) 카니쉬카紀元, 즉 카니쉬카王의 즉위년이 언제였던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인도고대사학자와 미술사학자들에게 논란거리이다. 이르케는 서력기원 78년부터 늦게는 240년경까지 다양한 설이 제시되었다. 인도학자들은 대체로 인도에서 사카(Śaka)기원으로 알려진 서기 78년을 카니쉬카기원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편 구미 학자들 사이에서는 그 보다는 늦은 서기 제 2세기 전반의 어느 때, 특히 서기 128년, 143/144년설이 유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필자는 기르쉬만(R. Ghirshmann)이 처음 제안한 143/144년설에 공감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세밀한 확정을 피하고 로젠필드(J. Rosenfield)가 제안한 110-115년을 상한으로 하고 Ghirshmann의 143/144년을 하한으로 하여 여유를 두는 입장을 취하려고 한다. 따라서 카니쉬카기원의 연대를 되도록 서력기원 연대로 환산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었다. 그냥 '기원전' 또는 '기원(후)'라고 할 때에는 서력기원을 의미한다. Ghirshmann의 설은 "Le problème de la chronologie des Kouchans," *Cahiers d'histoire mondiale* 3(1957), pp.689-722. Rosenfield의 설은 *The Dynastic Arts of the Kushans* (Berkeley, 1967), pp.256-57을 참고할 것. 이 문제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논의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저를 참고할 수 있다: A. L. Basham 編, *Papers on the Date of Kanīṣka* (Leiden, 1968); A. Soper, "Recent Studies Involving the Date of Kanīṣka: A Review Article," *Artibus Asiae* 33(1971), pp.339-50, 34(1972), pp.102-13 (앞의 논문집에 실린 諸說에 대한 論評); 高田修, 『佛像の起源』, pp.162-71.

이 ‘Buddha’ 또는 ‘Bhagavan Śākyamuni’(世尊 釋迦牟尼)라는 말로 대체되기 시작하였는가? 어쩌서 이 무렵 소위 通肩형식이 마투라에 수용되고(도 4) 그 이래 이 通肩형식은 초기 마투라형식을 대신하여 후대 불조상의 압도적 주류를 이루게 되었는가? (도 5)⁹⁾ 이러한 의문은 근래 네덜란드의 여류학자 故 반 로후이젠-드 레우(J. E. van Lohuizen-de Leeuw)의 연구에 의해 초기불교미술사연구에 새로이 대두된 다음과 같은 의문을 상기할 때 더욱 흥미로워진다.¹⁰⁾ 어쩌서 간다라의 북부에 위치한 스와트(Swāt)지방에서 초기마투라형식과 유사한 형식의 상들이 마투라와 거의 동시에 카니쉬카王 바로 前세기 중에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것인가? (도 6) 우리의 의문이 되는 이와 같은 세 가지 현상은 마투라像에 새겨진 Bodhisattva 라는 존명과 더불어 모두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마투라의 釋迦牟尼 조상형식이 初期마투라形式에서 通肩형식으로 전환한 것은—이제까지는 대체로 단순한 양식상의 변화로만 이해되어 왔지만—명문에 나타나는 尊名이 ‘Bodhisattva’로부터 ‘Buddha’, 또는 그에 상응하는 호칭으로 전환한 것과 軌를 같이 하는 의미있는 변화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소위 偏袒右肩式의 초기 마투라형식, 즉 서양학자들이 카파르딘(Kapardin)형식¹¹⁾이라고 부르는 것과 스와트지방에서 만들어진 유사한 형식이 菩薩, 즉 成道 이전의 釋迦牟尼¹²⁾를 나타내는 특정한 도상형식이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¹³⁾

9) 카파르딘形式과 ‘Bodhisattva’라는 銘刻 사이의 상관관계는 조안나 윌리엄스(Joanna Williams)가 1978년 美國의 東洋學會(Association of Asian Studies) 연례학회에서 발표한 “Buddha and Image in Kushan Mathura”라는 논문(출판되지는 않았음)에서 주목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 하게 될 필자의 논의는 恩師인 Williams 교수의 논문에서 처음 영감을 얻은 바가 큼을 밝혀둔다. 한편 Herbert Härtel 도 카파르딘形式像을 논하면서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하였다: “명문상으로 볼 때 Bodhisattva 라는 호칭은 脇侍像을 가진 마투라의 카파르딘形式 부조상, 그리고 카파르딘形式 입상에만 사용되고 있다는 결론을……내리는 것이 가능하다. 카파르딘形式이 사라지는 순간 이러한 호칭도 변하게 된다”(“The Concept of the Kapardin Buddha Type of Mathura,” J. Schotsmans와 M. Taddei 編, *South Asian Archaeology 1983* (Naples, 1985), p.662). 그러나 Härtel 은 이러한 상관관계의 의미를 더 이상 깊이 파고 들어가지 않았다.

10) J. E. van Lohuizen-de Leeuw, “New Evidence with Regard to the Origin of the Buddha Image,” H. Härtel 編, *South Asian Archaeology 1979* (Berlin, 1981), pp.377-400.

11) Kapardin 은 梵語로 ‘소라’를 뜻하는 말이다. 우리가 살펴보게 될 초기마투라의 상들이 대부분 소라 모양의 상투를 하고 있는 점에서 그와 같은 머리를 하고 偏袒右肩式의 복장을 한 마투라의 像들을 서양학자들은 흔히 카파르딘形式이라고 부르고 있다. 따라서 이 용어는 그러한 머리 모양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머리 모양에 일부 변형이 있는 경우도 편의상 이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쓴다. 이 용어는 경전에 나타난다든지 오래 전부터 쓰이던 것은 아니고 금세기에 들어 서양학자들이 造語한 말이다. 굳이 우리말로 하자면 ‘螺髻형식’이 되겠으나 이 경우에는 外延上 머리모양에만 국한되는 듯한 위양스가 있어서 그냥 카파르딘形式이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한다. 옷모양을 따서 偏袒右肩式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이렇게 되면 통상적인 法衣의 偏袒右肩과 혼동될 우려가 있다. 본고에서는 마투라像의 의복이 法衣와 상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을 피하였다.

12)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釋迦牟尼도 成道 이후에 해당하는 호칭이다. 성도 이전과 이후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호칭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듯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편의상 釋迦牟尼라는 호칭을 중립적인 용어로 借用하기로 한다.

13) 오래 전에 L. 셰르만(L. Schermann)은 Bodhisattva 라고 명각된 마투라의 상들이 출가 이후 성도 이전의 고타마를 나타낸다는 견해를 간단히 밝힌 바 있다(“Die ältesten Buddhadarstellungen der Münchener Museums für Völkerkunde,” *Münchener Jahrbuch der Bildenden Kunst* 6 (1929), p.151). 한편 바삼(A. L. Basham)도 비슷한 의견이다(“The Evolution of the Concept of the Bodhisattva,” L. S. Kawamura 編, *The Bodhisattva Doctrine in Buddhism* (Waterloo, Ontario, 1981), pp.30-31). 그러나 이것들은 단편적인 의견 피력을 그쳤을 뿐, 이러한 생각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논의하려는 시도는 이제까지 없었다.

II

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먼저 우리는 Bodhisattva 와 Buddha 라는 용어가 이 이른 시기에 별 구별없이 쓰였다는 종래의 의견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견은 마투라미술 연구에 획기적 업적을 남긴 van Lohuizen-de Leeuw 에 의해 가장 뚜렷히 피력된 바 있다. *The "Scythian" Period* (샤카族의 시대)라는 저서에서 그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그럴 듯한 해답은 Bodhisattva 라는 말의 의미가 변했다는 것이다. 즉 이 말이 [후대에] 원래보다 한정된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Bodhisattva 의 문자 그대로의 뜻, 곧 ‘自身の本質 또는 目標가 완전한 智慧인 자’라는 의미는 결코 이 말을 成道 이전의 사람에게만 국한된다고 할 수 없다. 문법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Bodhisattva 라는 호칭을 成道 이후의 사람에게 적용하는 데에도 아무 장애는 없을 것이다. (중략) 보드가야(Bodhgayā)에서 발견된 굽타시대 64 년의 연대를 가진 불상[도 7]에도 역시 Bodhisattva 라고 銘刻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는 Bodhisattva 라는 말의 語意 限定이 서기 4 세기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想定할 수 있다.¹⁴⁾

佛典에 조금이라도 정통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Lohuizen 의 의견에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바로 느낄 것이다. 필자가 아는 한 佛陀의 생애를 언급한 비교적 이른 시기의 경전 어디에도 Bodhisattva 와 Buddha 를 혼용 또는 혼동하고 있는 예는 없다. 즉 잘 알려진 *Mahāvastu*, *Lalitavistara*, *Nidānakathā*, 그리고 많은 초기 漢譯佛傳들에서 ‘Bodhisattva’ 또는 ‘菩薩’은 예외없이 成道 이전의 釋迦牟尼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며, 成道 직후부터 ‘Buddha’(또는 ‘佛’), ‘Tathāgata’(또는 ‘如來’), ‘Bhagavan’(또는 ‘世尊’) 등의 말이 비로소 대신 쓰이게 된다.¹⁵⁾ 예를 들어 기원후 197 년 竺大力과 康孟詳에 의해서 漢譯되어진

14) Lohuizen, *The "Scythian" Period*, pp.178-79. [] 안의 언급은 필자가 추가한 것이다.

15) *Mahāvastu* : E. Senart 本(Paris, 1882-97), II, pp.284-86, 344-48

(J. J. Jones 譯(1942-56), II, pp.266-69, 314-17.)

Lalitavistara : (E. Foucaux 譯(1884), pp.293-94).

Nidānakathā : (T.W.Rhys Davids 譯(1925), pp. 190~200).

梵本 *Buddhacarita* 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다. 그러나 漢譯本과 티베트本에는 들어 있다. 『佛所行讚』(北京 曇無讖 譯) : T. 192, p.28 a.

『修行本起經』(197 년 竺大力, 康孟詳 共譯) : T. 194, pp.471 c-472 a.

『太子瑞應本起經』(吳 支謙 譯) : T. 185, p.478 b.

『菩薩經』(*Lalitavistara*; 西晉 竺法護 譯) : T. 186, p.522 b.

『方廣大莊嚴經』(*Lalitavistara*; 唐 地婆訶羅 譯) : T. 187, pp.595 c-596 a.

(異出) 『菩薩本起經』(西晉 聶道真 譯) : T. 188, p.620 a.

『過去現在因果經』(劉宋 求那跋陀羅 譯) : T. 189, p.642 b.

『佛本行集經』(隋 闍那崛多 譯) : T. 190, p.795 c.

『佛本行經』(宋 寶雲 譯) : T. 193, p.78 c.

(T는 『大正新脩大藏經』의 수록번호를 의미함. 이하도 같음.)

이상에 열거된 漢譯佛傳들은 中國의 譯經史를 반영하여 모두 後漢代 이후의 것이며 시대가 몇 세기 내려오는 것도 있다. 그러나 이 漢譯本들의 梵文 原典은 이보다 상당 기간 전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것으로 알려진 『修行本起經』(T. 185)에서는 釋迦牟尼가 成道를 이루기까지의 장면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菩薩累劫清淨之行 至儒大慈 道定自然 忍力降魔 鬼兵退散 定意如故 不以智慧 無憂喜想 是日夜半 後 得三術闡 漏盡結解……

菩薩自知 已棄惡本 無淫怒癡 生死五陰 諸種悉斷 無餘災變所作已成 智慧已了 明星出時 廓然大悟 得無上正眞道 爲最上正覺 得佛十八法 有十神力四無所畏…… 是時 佛在摩竭提界善勝道場貝多樹下 德力降魔 覺慧神靜 三達無碍 度二賈客……¹⁶⁾

이러한 식의 서술과 ‘Bodhisattva’ 또는 ‘菩薩’이라는 말의 용법은 경전에서 아주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호칭들은 다른 過去佛이나 未來佛의 경우에 쓰일 때에도 같은 식으로 쓰여지고 있다.¹⁷⁾ 따라서 인도고대 불교에서 Bodhisattva와 Buddha, 이 두 용어가 混用 또는 混同되고 있었다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다. 더욱이 위에 언급한 경전들은 대부분 Lohuizen 이 언급한 보드가야 출토의 굽타시대 菩薩銘상보다 분명히 시대가 올라가는 것이어서 菩薩이라는 말이 후대에 비로소 한정적 의미로, 즉 성도 이전의 상태에 한정된 의미로 사용되게 되었다는 견해도 설득력을 잃는다.¹⁸⁾ 그러므로 Lohuizen 의 의견은 순전히 억측이라

16) T. 184, pp. 471 b 22-24, 471 c 27-472 a 1, 471 b 13-14.

17) Lohuizen 은 *Theragāthā* 가운데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언급을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 . . Buddhassa mātā pana Māyanāmā yā bodhisattam parihariya kucchinā. . .”(… Buddha 의 어머니, Bodhisattva 를子宮에 품었던 그녀는 Māyā 라 이름했다) (*The “Scythian” Period*, p.179) 그러나 이 문 중에서 Buddha 와 Bodhisattva 는 다른 의미 레벨에서 쓰여졌음을 주의해야 한다. 마야夫人은 時點에 관계없이 ‘Buddha 의 어머니’라 불릴 수 있다. 왜냐하면 이 호칭은 이 이야기에 설정된 일반적 상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반면 Bodhisattva 는 ‘Bodhisattva 를 자궁에 품었을 때’라는 특정 시점의 상황을 묘사하는 데에 쓰이고 있는 것이다. 다른 경전에서도 Buddha 나 Bhagavan 은 위와 같은 용법으로, 회고적인 의미에서 간혹 성도 이전에도 쓰이지만, Bodhisattva 는 성도 이후에는 결코 쓰인 바가 없다. 그밖에 Lohuizen 이 인용한 Buddhagosa 의 *Sumaṅgalavilāshini* (5세기)는 앞서 열거한 대부분의 漢譯佛傳의 漢譯시기보다도 늦은 시기의 作이므로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Bodhisattva 라는 말의 의미와 용법, 그 역사적 전개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들을 참고할 것: P. Demiéville, “Bosatsu 菩薩,” in *Hobogirin* 3 (Tokyo, 1930), pp.136-42; A. G. S. Kariyawasam, “Bodhisattva,” *Encyclopaedia of Buddhism* 3 (Columbo, 1972), pp.224-33; A. L. Basham, “The Evolution of the Concept of the Bodhisattva”(註 13 참고).

18) 이보다 몇 세기 전 기원전후부터 흥기한 大乘불교에서 成佛에 앞서 修行과 衆生濟度에 힘쓰는 ‘菩薩’이라는 존재를 理想的인 人間型으로 삼는 ‘菩薩’ 思想이 대두하고 있었음은 周知의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은 그 이전부터, 釋迦牟尼가 성도하기 이전(前生을 포함함), 菩薩이던 당시의 修行을 중시하는 데에서 이미 싹트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菩薩思想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저들을 참고할 것: H. Dayal, *The Bodhisattva Doctrine in Buddhist Sanskrit Literature* (London, 1932); 于渴龍祥, 「菩薩思想の起源と展開」, 宮本正尊編 『佛敎の根本眞理』(東京, 1957), pp.219-40.) 어쨌든 기원후 4세기말에 들어서서 菩薩이라는 말의 의미한정이 비로소 이루어졌으리라는 의견은 한 마디로 상식 밖의 것이다. 이 마투라像들에 새겨진 Bodhisattva 라는 말이 大乘불교에서 완성된 ‘菩薩’사상에서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菩薩’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이 像들은 명문에서 확인되듯이 部派불교의 산물이며 이 콘텍스트에서 菩薩이라는 말은 아직 釋迦牟尼나 過去·未來佛의 경우에 한정되어 사용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cf. W. Rahula, “L’idéal du Bodhisattva dans le Theravāda et le Mahāyāna,” *Journal Asiatique* 129 (1971), pp.63-70. 이 문제에 대해서는 후술하겠다. 한편 이 굽타시대像의 문제도 아래에서 다시 논한다(p. 16 참고).

고 할 수밖에 없다.¹⁹⁾

인도 고대불교에서 Bodhisattva와 Buddha라는 두 말이 의미상 거의 차이없이 쓰여졌다는 견해는 전혀 근거 없는 것이다.²⁰⁾ 마투라의 카파르딘형식像의 명문에 나타나는 Bodhisattva라는 호칭은 성도이전의 釋迦牟尼를 뜻했음이 틀림이 없다.

III

불상 기원 문제의 연구에 기념비적 업적을 남긴 日本학자 타카타 오사무(高田修)도 카파르딘형식像의 銘文에 나타나는 Bodhisattva라는 호칭이 成道이전의 釋迦牟尼를 뜻했던 것으로 간주하고 Bodhisattva와 Buddha 사이의 의미 차이가 그 시기 마투라에서 분명히 인지되어 있었을 것으로 본다.²¹⁾ 그러나 高田은 카파르딘형식像이 모습(像相)으로는 菩薩이 아닌 佛陀를 나타내는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한다. 그 이전까지 불상표현을 금하던 전통에서 벗어나 불상조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便法으로 佛陀를 나타내는 像에 단지 Bodhisattva라는

19) 혹자는 문헌전통과 실제 사이에 괴리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할런지도 모르겠으나, 이와 같은 현저한 문헌상의 일관성은 실제상황의 반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 그레고리 쇼펜(Gregory Schopen)도 Buddha와 Bodhisattva의 混用說을 주장한다(前掲 “The Inscription on the Kuṣāṇ Image...” p.118). 그의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것은 마투라에서 발견된, 브라미(Brahmi)와 카로쉬티(Kharoṣṭhi)문자로 쓰여진 한 석조대좌의 명문이다. 四行으로 되어 있는 이 명문은 셋째 줄까지는 브라미문자로(아마 카니쉬카기원) 46년(‘6’자는 다소 불확실) 마투라의 한 精舍에 Bodhisattva의 像이 봉헌된 것을 기록하고 있다. 이 브라미 부분의 판독이나 이해에는 별 의문이 없다. 문제는 마지막 줄의 카로쉬티 부분이다. 이 명문을 처음 판독한 차토파디아야(B. D. Chattopadhyaya)는 이 줄을 “Makarapratima mahada(m) ḍanayakasa Ehaḍa”라고 읽었다(“On a Bi-scriptual Epigraph of the Kuṣāṇa Period from Mathura,” *Journal of the Ancient Indian History* 13(1980-82), pp.277-84). 그는 여기서 “mahada(m) ḍanayakasa Ehaḍa”는 寄進者의 직함과 이름으로 해석하였으나 “makarapratima”(문자 그대로는 ‘makara의 像’이라는 뜻)의 의미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무커지(B. N. Mukherjee)는 Chattopadhyaya의 판독을 수정하면서 “makarapratima”를 그 대신에 “B(u)dhasapratima”(Buddha의 像)이라고 읽었다(“A Note on a Bi-scriptual Epigraph of the Kuṣāṇa Period from Mathurā,” 같은 책, pp.285-86). 그리고 그는 이 像이 브라미와 카로쉬티 부분에서 각각 Bodhisattva와 Buddha로 서로 달리 불리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Mukherjee의 이러한 판독에 의문의 여지가 없는지는 의심스럽다. 필자가 사진으로 보기에(*Indian Archaeology* 1972-73, pl. 50 b), 그가 ‘b(u)’라고 추정한 字(akṣara)는 판독이 그리 확실하지 않다. 또 그가 ‘sa’라고 확신한 字도 같은 줄의 뒤에 나타나고 보다 분명하게 확인되는 ‘sa’字와 비교해 볼 때 큰 차이를 보여준다. 인도 古銘 판독에 관한 Mukherjee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이 판독을 그의 의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된다. Chattopadhyaya의 판독도 만족스러운 것은 못되지만 이 부분의 판독과 해석은 당분간 숙제로 남겨둘 수 밖에 없을 듯하다. 또한 의문이 되는 것은 어째서 하나의 像에 새겨진 명문에 하필 두 가지 문자를 사용하고, 또 이 두 가지 문자의 부분에서 존명을 각각 Bodhisattva와 Buddha로 상이하게 새길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한 걸음 양보해서 Mukherjee의 판독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것이 바로 Bodhisattva와 Buddha의 단순한 혼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마투라에서는 카니쉬카기원 제1세기중엽에 菩薩조상으로부터 佛조상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과도적 현상들이 일어난다. 이 석조대좌의 상은 바로 그 시기의 작품이며, 만일 Bodhisattva와 Buddha라는 호칭이 이 명문에서 함께 쓰여졌다고 해도 그러한 과도적 현상의 반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다. 아무튼 이 명문은 인도 고대불교에서 일반적으로 Bodhisattva와 Buddha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었다는 주장에 결정적 증거가 되지 못한다.

21) 高田修, 『佛像の起源』, pp.400-12.

명칭을 새겼을 뿐이라는 것이다. 카파르딘형식像이 佛陀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의 근거는 같은 형식 중에 Buddha 라고 銘刻된 예가 소수나마 존재하고 또 像의 뒤쪽에 佛陀 成道の 標識로서 菩提樹가 조각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언급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Bodhisattva의 명각이 의식적인 편법이었는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겠다.

만일 불상조성에 대해 그러한 禁制가 있었다면, 단순히 Buddha 대신 Bodhisattva 라는 호칭을 쓰는 편법이 공식적인 레벨에서도 허용될 수 있었을 것인가? 像에 Bodhisattva 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면 그 상은 실제로도 Bodhisattva의 상으로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근래에 古銘학을 통해 인도불교사연구에 획기적 성과를 올리고 있는 美國의 그레고리 쇼펜(Gregory Schopen)은 마투라에서 제작된 많은 초기 카파르딘형식像의 奉獻에 상당한 학식을 갖춘 승려들이 깊이 관여했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²²⁾ 예를 들어 카니쉬카왕 3년에 佛陀의 初轉法輪地 사르나트(Sārnāth)에 봉헌된 菩薩銘 입상(도 2)은 명문에 의하면 ‘三藏에 정통한 승려 발라(Bāla)’(Bāla trepitaka)가 봉헌한 것이었다.²³⁾ 이 발라라는 승려는 이 밖에 또 다른 불교 성지인 쉬라바스티(Śrāvastī, 舍衛城)에 菩薩銘像을 봉헌하는 데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다.²⁴⁾ 제작지인 마투라로부터 각각 500 km와 300 km 떨어진 이 두 지역에 그와 같은 대규모의 석조상이 봉헌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그 봉헌행사는 성대한 공식적인 일이었다는 생각된다.²⁵⁾ 발라三藏은 이 像들의 原寄進者였다기보다는 奉獻주관자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 밖에도 많은 명문에 승려들의 이름이 상의 봉헌자로서 보인다.²⁶⁾ 발라와 같이 당시 불교계에서 상당한 위치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승려들이 금지된 불상봉헌을 정당화하기 위해 불상에 단순히 菩薩이라는 이름을 명각하는 ‘便法’에 의존했다고 볼 수 있을까? 불

22) Schopen, "On Monks, Nuns and Vulgar Practices: The Introduction of the Image Cult into Indian Buddhism," *Artibus Asiae* 49-1/2(1988/89), pp.158-65.

23) 이 상에는 세 개의 명문이 傘蓋의 받침기둥과 상의 대좌부에 남아 있다. 이중 산개기둥의 것이 가장 길고 자세하나 나머지 두 개도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산개기둥에 새겨진 명문의 대략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카니쉬카대왕 3년 冬節 제 3월 제 22일 比丘 푸쉬야부디의 동료인 발라(Bāla) 三藏은 바라나시의 世尊 經行處에 Bodhisattva의 상과 산개 및 그 기둥을 세운다. 그의 부모와 스승, 동료, 제자, (比丘尼) 부다미트라(Buddhamitrā) 三藏, 그리고 領主(kṣatrapa) 바나스파라와 카라팔라나, 또 四部大衆과 더불어. 모든 중생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原文은 J. Ph. Vogel, "Epigraphical Discoveries at Sarnath," *Epigraphia Indica* 8(1905-06), pp.173-79를 참조할 것)

24) 이 상의 명문에는 연대 부분이 마멸되어 남아 있지 않으나 역시 Bāla가 봉헌자인 점, 명문의 형식과 조상의 양식이 앞의 사르나트상과 아주 유사한 점 등으로 보아 비슷한 시기의 作으로 볼 수 있다. T. Bloch, "Two Inscriptions on Buddhist Images," *Epigraphia Indica* 8(1905-06), p.180; R. C. Sharma, *Buddhist Art of Mathura* (Delhi, 1984), fig. 130.

25) Schopen, "On Monks, Nuns and Vulgar Practices," pp.159-63. Basham도 비슷한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The Evolution of the Concept of the Bodhisattva," pp.29-30).

26) 표: A-1, 5, 7, 10, 15, 16, 18, B-7.

상조성에 대해서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禁制가 있었고, 거기에서 벗어나 불교의 敎祖를 나타내는 像을 만드는 시도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본격화되면서 그러한 시도로서 만들어진 상들을 菩薩이라고 명각했다면, 그 상들은 실제에도 菩薩을 나타내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 아닐까? 27) 이와 같이 Bodhisattva 라고 명각된 카파르딘형식像의 이름과 내용이 달랐으리라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다. 그 상들은 이름뿐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도 Bodhisattva 를 의미했던 것이라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IV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카파르딘形式이 菩薩을 나타내는 圖像形式이었다는 필자의 주장에 검토해 보기로 하자. 이 견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들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이 형식에 속하는 상들의 대부분은 Bodhisattva 라고 명각되어 있다. 필자가 아는 한 현재 남아 있는 像 중에 분명히 카파르딘形式임을 알 수 있고 명문에서 尊名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총 17점이다(표: A-1, 2, 7, 8, 9, 10, 14, 16, 18, B-1, 2, 3, 4, 5, 6, 8, 9). 이 가운데 연대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9점이며, 카니쉬카 기원 2년부터 39년까지 분포하는 이 9개의 상들은 모두 Bodhisattva 라고 銘刻되어 있다(표: A-1, 2, 7, 8, 9, 10, 14, 16, 18). 연대가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나머지 8점 가운데에도 6점에 Bodhisattva 라는 명각이 있다(표: B-1, 2, 3, 4, 5, 6). 이 중에는 카니쉬카 기원 이전 시대작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3-4점 포함되어 있다(표: B-1, 3, 6, 2? 4?). 남은 2점에는 각각 ‘Buddha’와 ‘Bhagavan Buddha Śākyamuni’라는 명문이 있으나 이것들은 예외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표: B-8, 9). 이 중 후자는 기껏해야 카니쉬카 기원후 제 1세기 중엽에서 조금 지난 시기의 作이 틀림없으며(도 8) 전자도 그리 시대가 올라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도 9). 이 밖에 흔히 ‘Bhagavan Śākyamuni’라고 명각된 카니쉬카 기원 45년과 51년의 입상도—둘 다 발목 이하의 부분만이 남아 있어서 단정은 할 수 없지만—카파르딘形式이었을 가능성이 있다(표: A-19, 22). 이렇게 볼 때 카파르딘형식의 像은 일관되게 ‘Bodhisattva’의 상으로 명각되어 오다가 카니쉬카 기원 제 1세기 중엽 쯤부터 그 명문에 ‘Buddha’ 또는 그에 상응하는 호칭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카파르딘形式이 원래 Bodhisattva 의 상이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27) Basham 도 필자와 같은 의견을 표명한다(“The Evolution of the Concept of the Bodhisattva,” p.30).

표 : 쿠산시대 마투라 제작 在銘 佛/菩薩像 (I : 카파르딘形式, II : 通肩形式)²⁸⁾

A : 연대를 알 수 있는 像²⁹⁾

번 호	銘刻연대 ³⁰⁾	형 식	銘刻尊名	참 고 문 헌 ³¹⁾
1	2	I	Bodhisattva	Chandra, ³²⁾ no. 85
2	3	I	Bodhisattva	Vogel, ³³⁾ pl. 28 ; LL ³⁴⁾ 925, 926(본고 도 2)
3	4	I (?)	Bodhisattva	Härtel, ³⁵⁾ p. 656
4	5	I	?	Sharma(1984), ³⁶⁾ fig. 89 와 pp. 181 ff
5	6(?)	? I (?)	Bodhisattva	Sharma(1975), ³⁷⁾ p. 15
6	8	II ³⁸⁾	Bodhisattva(?)	Myer, ³⁹⁾ fig. 23

28) 이 목록은 필자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작성되었다. 이와 비슷한 목록이 高田修, 『佛像の起源』, pp.308-09(表 9)와 Härtel, "The Concept of the Kapardin Buddha Type of Mathura," pp.656-57 에 있다. 前者는 紀年銘像만을 다루고 있는데 주안점이 편년문제 해결에 두어져 있고, 後者는 카파르딘形式 紀年銘像만을 수록하고 있다.

29) 형식과 존명에서 ?는 확인 불능인 것을, x는 명문에 존명이 원래 새겨지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30) 본고에서 필자는 Lohuizen 이 *The "Scythian" Period* 에서 제안한 소위 '百字省略說'을 따른다. 마투라의 佛/菩薩 및 자이나像에 새겨진 연대는 2년부터 98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두 자리 이하의 수이다. 그런데 이 기간의 전 반부에 속하는 연대를 가진 상들 가운데에 양식적으로나 형식적으로 확연히 구별되는 상들이 소수 존재한다. 이러한 상들은 다수의 다른 상들과 같은 시대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한 세기 뒤에 만들어진 것인데 다만 연대를 명각할 때 '100'자를 생략하고 두 자리 수만을 새긴 것이라는 해석이 '百字省略說'의 골자이다. 한편 Rosenfield 는 일부 상들이 그와 같이 한 세기쯤 뒤의 작업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100'자가 생략된 것이 아니라 카니쉬카 기원 98년에 제 2 카니쉬카 기원이 쓰여졌다는 의견을 제시했다(*The Dynastic Arts of the Kushans*, p.106). 그러나 이 두 주장 사이에는 불과 2년의 차이만이 있을 뿐 결과적으로는 대동소이한 의견이다. 여쭙든 이러한 학설은 대부분의 구미학자들, 또 R. C. Sharma 를 포함한 몇몇 인도학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다. '百字省略說'은 다음 글에 잘 정리 검토되어 있다: J. Williams, "The Case of Omitted Hundreds: Stylistic Development in Mathurā Sculpture of the Kuṣāṇa Period," D. Srinivasan 編, *Mathurā: the Cultural Heritage*(New Delhi, 1989), pp.325-31. '百字省略說'에 대한 강한 반론은 B. N. Mukherjee, "Problems of Dated Images of the Mathura School of Sculpture of the Kushan Period," B. N. Gafurov 外編, *Central Asia in the Kushan Period*, vol.2 (Moscow, 1975), pp.346-62에서 읽을 수 있다. 高田修의 입장도 참고할 것(『佛像の起源』, pp.314-20). 위 표에서 연대를 가리키는 수자 옆의 괄호 안에 그 수자에 백이 더해진 수자가 있는 경우 '百字省略說'이 적용되었음을 의미한다.

31) 참고문헌으로 여기에 제시한 것은 비교적 잘 알려지거나 손쉽게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했다.

32) P. Chandra, *Stone Sculpture in the Allahabad Museum*(Poona, 1970).

33) Vogel, "Epigraphical Discoveries at Sarnath," *Epigraphia Indica* 8(1905-06).

34) H. Lüders, *A List of Brahmi Inscriptions from the Earliest Times to about A.D. 400 with the Exception of Those of Asoka*, Appendix to *Epigraphia Indica* 10 (1912)의 수록번호를 나타냄.

35) H. Härtel, "The Concept of the Kapardin Buddha Type of Mathura."

36) R. C. Sharma, *Buddhist Art of Mathura*.

37) G. Sharma, "The Śaka-Kushans in the Central Ganga Valley (Mainly a Review of New Data from Kausambi)," Gafurov 外編, *Central Asia in the Kushan Period*, vol. 2(1975), pp.15-41.

38) 아래 註 78 참고.

39) P. Myer, "Bodhisattvas and Buddhas: Early Buddhist Images from Mathura," *Artibus Asiae* 47-2(1986), pp.107-42.

	(또는 =108 ?)			LM ⁴⁰⁾ 128(본고 도 21)
7	16 또는 10	I	Bodhisattva	LM 157
8	17	I	Bodhisattva	Sharma(1984), fig. 90 ; LM 150
9	20	I	Bodhisattva	Rosenfield, ⁴¹⁾ fig. 31 ; LM 73
10	23	I	Bodhisattva	Sharma(1984), fig. 91 ; LM 136
11	28	I	?	LM 28
12	28	?	Bhagavan Buddha Amitābha ⁴³⁾	Schopen(1987) ⁴²⁾
13	31	I	?	LM 103
14	31	I	Bodhisattva	Czuma, ⁴⁴⁾ p. 227, no. 9
15	32	I	x	Sharma(1984), pp. 189-90 과 fig. 78
16	33	I	Bodhisattva	LM 24
17	35	I	?	高田, ⁴⁵⁾ pl. 60 LL 1421
18	39	I	Bodhisattva	Sharma(1984), fig. 101 ; LM 126
19	45	?	Bhagavan Śākyamuni	LM 180
20	46	?	Bodhisattva/Buddha(?)	<i>Indian Archaeology</i> 1972-73, pl. 50 b ⁴⁶⁾
21	50	?	?	LL 51
22	51	? I(?)	Bhagavan Śākyamuni	Sharma(1984), fig. 110 ; LM 29
23	51	II	Bodhisattva(?)	Sharma(1984), fig. 109 ; LM 134 (본고 도 10)

40) Lüders, *Mathura Inscriptions*의 수록번호.

41) J. Rosenfield, *The Dynastic Arts of the Kushans*.

42) G. Schopen, "The Inscription on the Kusān Image of Amitābha and. . ."

43) 마투라의 고빈드나가르(Govindnagar)에서 출토된 이 상의 명문은 인도에서 이미 쿠샨시대에 阿彌陀佛에 대한 신앙이 실존했음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현재 이 상은 발목 아래 부분과 대좌만이 남아 있어 원래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어쩌면 이 시기의 카파르딘형식과 비슷한 형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상은 이미 기성교단에서 떨어져 나와 阿彌陀佛을 신앙하던 소집단의 大乘불교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숭배되었던 것에 틀림없다. 따라서 기성교단에 속한 사람들이 봉헌했던 것임을 명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부분의 카파르딘形式 菩薩像과는 성격이 다른 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상도 명문에 연대와 불상으로서의 존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킨다. 이 명문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Schopen의 논문을 참고할 것.

44) S. Czuma, *Kushan Sculpture: Images from India* (Cleveland, 1985).

45) 高田修, 『佛像の起源』.

46) 註 19 참조.

24	53	?	?	Bajpai, ⁴⁷⁾ pp. 136-37
25	64 또는 67	?	Śākyamuni (?)	Sircar(1953-54) ⁴⁸⁾
26	74	?	Bhagavan Śākyamuni	Bühler(1894), ⁴⁹⁾ p. 212, no. 42
27	83	II	?	Sharma(1984), p. 278 과 fig. 128
28	83	II	x	Sharma(1984), p. 278 과 fig. 129
29	83	II	?	Sharma(1984), fig. 127
30	92	I	x	Agrawala, ⁵⁰⁾ pp. 76-78
31	14(=114)	?	Bhagavan Pitāmaha Samyaksambuddha	LM 81
32	16(=116)	?	Bhagavan Advitiya- puruṣa	Sircar(1984) ⁵¹⁾
33	22(=122)	II	Buddha	Sharma(1984), fig. 126 ; LM 74 (본고 도 11)
34	36(=136)	II	Buddha	Sharma(1984), fig. 131

B : 연대를 알 수 없는 像

번 호 형 식	銘 刻 尊 名	참 고 문 헌
1 I	Bodhisattva	Sharma(1984), fig. 78 ; LM 2
2 I	Bodhisattva	Sharma(1984), fig. 87 ; Vogel, p.180
3 I	Bodhisattva	Myer, fig. 1 ; LM 1(본고 도 3)
4 I	Bodhisattva	Sharma(1984), fig. 88
5 I	Bodhisattva	Sharma(1984), fig. 130 ; LL 918, 919

47) Bajpai, *Siksha* (1955. 4).

48) D. C. Sircar, "Mathura Image Inscription of Vasudeva," *Epigraphia Indica* 30 (1953-54), pp.181-84.

49) G. Bühler, "Further Jaina Inscriptions from Mathura," *Epigraphia Indica* 2 (1894), pp.195-212.

50) V. S. Agrawala, "Catalogue of the Mathura Museum: Buddha and Bodhisattva Images," *Journal of the United Provinces Historical Society* 21(1948), pp.42-98.

51) D. C. Sircar, "A Stone Inscription in the Patna Museum," *Journal of the Asiatic Society of Bengal* (Letters) 14(1948), pp.117-20.

6	I	Bodhisattva	Sharma(1984), fig. 86 ; LM 106
7	I (?)	Bodhisattva	Sharma(1974-75), p. 15
8	I	Buddha	高田, pl. 65 ; LM 135(본고 도 9)
9	I	Bhagavan Buddha Śā- kyamuni	Sharma(1984), fig. 99 (본고 도 8)
10	II	Bhagavan Śākaymuni	Waldschmidt, ⁵²⁾ pl. 36 c

둘째, 카파르딘形式의 像에 ‘Buddha’ 또는 그에 상응하는 호칭이 등장할 무렵, 다시 말해 카니쉬카 기원 제 1세기 중엽에 通肩형식이 마투라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그 이래 이 형식은 카파르딘 형식을 대체하여 釋迦牟尼 조상의 압도적 주류를 이룬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학자들은 별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전환이 종래처럼 단순한 양식상의 변화로 돌려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카파르딘形式은 이 지역의 불교미술에 있어서 이미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환의 배후에는 어떤 뚜렷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마투라의 불교계에서는 카파르딘形式이 애초에 菩薩을 나타내는 형식으로 창안되었기 때문에 佛陀의 조상으로는 이제 적합하지 않다고 여겼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것은 카파르딘형식像에 새겨진 Bodhisattva 라는 존명이 실제로 佛陀를 나타내는 상에 단순한 편법으로 붙여진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

紀年銘像 중에 이 새로운 通肩형식의 像으로서 비교적 이른 예가 카니쉬카 기원 51년銘의 좌상이다(도 10). 이 상의 명문에서 뢰더스(Heinrich Lüders)는 ‘...Bo...[t]. a’라는 부분을 간신히 읽었다. 이 부분은 마모가 심해서 이 관독이 그다지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이 원래 ‘Bodhisattva’ 銘刻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 이전 정식으로 불상을 만들지 못하고 菩薩像 造像에 만족해 오던 관행 때문에 아직 새로운 형식이 명실공히 수용되고 있지 못했던 까닭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카니쉬카 기원 제 1세기 후반 이래 만들어진 마투라의 通肩형식상들은 당시 쿠산왕조의 쇠락에 따른 사회의 침체를 반영한 탓인지 카니쉬카 기원 제 1세기 전반기에 만들어진 카파르딘형식像들에 비해서 규모나 질적인 면에서 많이 떨어지고 명문도 소략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존명 확인이 쉽지 않으나, 확인이 가능한 3 점에는—앞서 언급한 51년銘상을 제외하고—‘Buddha’ 또는 ‘Bhagavan Śākaymuni’라는 명칭이 새겨져 있어 通肩형식이 佛陀를 나타내는 새로운 형식으로 받아들여졌음을 뒷받침한다(표: A-33, 34, B-10; 도 11).

셋째, 카파르딘형식像의 의복이 과연 흔히 간주되어 온 것처럼 僧服을 나타낸 것인지 의문

52) E. Waldschmidt, “Die Entwicklungsgeschichte des Buddhahildes in Indien,” *Ostasiatische Zeitschrift*, n. f. vol. 6(1930).

스럽다. 그 겹옷이 saṃghāṭī(僧伽梨, 大衣)가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카파르딘형식像은 內衣없이 겹옷을 그냥 맨 몸 위에 걸치고 있는데, 이것은 승려들에게 그러한 着衣를 禁한 “不應襯身著僧伽梨”라는 律藏 중의 규정과 相馳하는 것이다.⁵³⁾ 또한 saṃghāṭī가 이와 같이 몸이 흰히 비치는 얇은 옷감으로 되어 있었을지도 극히 의심스럽다. 彫像에 나타난 僧服제도를 연구한 바 있는 그리스월드(A. B. Griswold)도 비슷한 견해를 표명하면서, 카파르딘形式에서 보는 것과 같은 옷 두르는 방식은 saṃghāṭī로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한다.⁵⁴⁾ 간다라의 불상이 입고 있는 通肩의 의복이 승복형태를 그대로 취한 saṃghāṭī임에 의문이 없는 데 반해, 카파르딘형식像의 의복은 도저히 saṃghāṭī라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 겹옷을 saṃghāṭī가 아닌 uttarasamga(鬱多羅僧)로 보려는 의견도 있으나⁵⁵⁾ 이왕 像의 의복을 승복형식에 맞추어 정하면서 saṃghāṭī 없이 uttarasamga 만 걸친 어색한 형태로 디자인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카파르딘형식像의 의복을 승복형식의 범주 안에서 파악하려는 종래의 관념은 이 형식이 어쨌든 佛陀를 나타낸 것이었다는 가정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의복이 승복과 무관한 것이었다고 보면 문제는 쉽게 풀린다. 카파르딘형식像이 걸친 겹옷은 얇은 천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쇼올이라고 보인다. 이러한 쇼올은 고대인도 남성복식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종종 가늘게 포개져 넓은 띠 모양으로 몸에 드리워졌다. 예를 들어 럭크나우(Lucknow)州立박물관 소장의 입상(도 12)이나 아히차트라(Ahicchatra) 출토의 彌勒菩薩 입상(도 13)을 참고할 수 있다. 카파르딘形式에서는 이 쇼올이 널찍하게 드리워져 오른 쪽 어깨 부분을 제외한 몸의 대부분을 가리고 있는 것이다. 앞서 두 상과의 차이점은 머리 모양과 장신구의 유무 뿐이다. 이 마투라상들에 쇼올이 드리워진 방식은 간다라조각의 몇몇 통상적인 菩薩상에서⁵⁶⁾ 보는 방식과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도 14). 카파르딘형식像에 표현된 인물은 saṃghāṭī를 걸친 佛陀의 모습이 아니라 일상인의 복장에서 터번과 장신구만을 벗은 모습, 즉 수행 중인 菩薩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⁵⁷⁾

53) 『十誦律』, T. 1435, p. 419 b. 또 高田修, 『佛像の起源』, pp. 371-72. 혹자는 說一切有部の 『十誦律』이 반드시 이 경우에 관련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할런지도 모르겠으나, 카파르딘像 중에 說一切有部와 관련된 상이 7점이나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54) Griswold, “Prolegomena to the Study of the Buddha’s Dress in Chinese Sculpture,” *Artibus Asiae* 36-2(1963-64), pp. 111-12.

55) 山本智教, 『マトウラ古美術』, p. 47 (高田修, 『佛像の起源』, p. 372로부터 재인용).

56) 여기서 통상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초기마투라의 釋迦牟尼菩薩像보다 후대에 보편화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장신구를 걸친 王公, 또는 브라만수행자 모습의 菩薩像을 일컫는다.

57) 안드라지방에서 만들어진 佛입상의 偏袒右肩 복식은 一見 카파르딘 菩薩상의 의복형식과 유사하게 느껴질지 모르겠다(예를 들어 B. Rowland, *The Art and Architecture of India* (Harmondsworth, 1977년판), fig. 145 참고). 그러나 안드라像의 경우에는 法衣 밑으로 몸이 비쳐 보이지 않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굽타시대에 사르나트에서 만들어진 불입상 중에는 옷 안 쪽으로 裙衣 끈이 드러나 보이는 예가 있다(J. Williams, *The Art of Gupta India* (Princeton, 1982), pls. 85, 87). 그러나 이 시기는 처음 불상이 창안된 때부터 적어도 350년 이상 지난 시점으로서 원래 불상이 입고 있는 옷이 僧服이라는 관념은 이미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진지 오래였으리라 여겨진다. 佛陀가 점점 더 초인적이고 초월적인 존재로 신격화돼 가면서 조형적으로 표현된 佛陀의 형상도 크게 변모되어 가고 원래의 의미는 많이 잊혀졌을 것이다. 佛陀가 입고 있는 의복은 더 이상 승복의 차원에 묶여 있지 않았던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카파르딘형식像과 위에서 언급한 스와트지방에서 출토된 一群의 浮彫像과의 유사성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도 6, 15). 이 스와트像들은 Lohuizen이 1981년 발표한 논문에서 처음 논의함으로써 학계의 비상한 주목을 받게 되었다.⁵⁸⁾ 파체나(D. Faccenna)가 이끄는 이탈리아의 IsMEO(Istituto Italiano per il Medio Estremo Oriente, 이탈리아東方學院) 발굴단이 발굴한 불카라 제 1 유적(Butkara I)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들이 출토된 바 있었다(도 16).⁵⁹⁾ 불카라 출토품은 층위자료에 따라 기원전 1세기~기원후 1세기의 시대로 연대가 추정되었다.⁶⁰⁾ Lohuizen은 이탈리아팀의 이러한 年代觀에 의거하여, 자신이 論한 一群의 스와트 출토 부조상들도 역시 비슷한 연대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이 상들이 마투라의 카파르딘像들과 놀랄 만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이 상들은 마투라像들과 밀접한 관련 아래 만들어진 西北인도 最古의 佛造像例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Lohuizen이 스와트浮彫像들의 연대를 추정하는 데에 근거로 이용한 불카라 제 1 유적의 각 층위 연대판정에 다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문제의 층위, 즉 大塔 제 3층위의 연대판정은 순전히 이 층위에서 발견된 아제스(Azes) 2세의 金貨 한 잎에 의존한 것이었다.⁶¹⁾ 더군다나 1980년대 초에 출간된 IsMEO의 발굴보고서에서는 서술부분에 따라 이 층위의 연대를 기원전 1세기말~기원후 1세기 초, 또는 기원후 1세기~2세기 초로 엇갈리게 제시하고 있다.⁶²⁾ 따라서 IsMEO의 결론에 다소 의문이 가는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근래에 페샤와르大學(Peshawar University)이 발굴한 불카라 제 3 유적에서도 비슷한 성격의

58) Lohuizen, "New Evidence with Regard to the Origin of the Buddha Image." 참고로 덧붙이면, 스와트 지방은 간다라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페샤와르지역의 북쪽에 위치한 산간지대이다. 고대에 우디야나(Udyāna)라고 불리었던 이 지역에서는 페샤와르지방 못지 않게 불교가 성했음이 法顯이나 玄奘의 기록을 통해 알려져 있다(『法顯傳』, T. 2085, p.858 a-b; 『大唐西域記』, T. 2087, pp.882 b-884 b). 실제로도 수많은 불교사원지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 그 중에는 불카라 제 1 유적(Butkara I), 사이두 사리프(Saidu Sarif) 등 대규모 사원지도 포함되어 있다.

59) Butkara I은 아쇼카王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는 大塔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사원지이다. 현재는 이 사원의 중심부만이 발굴되었을 뿐이다. 발굴을 통해 수백점의 조각유물이 출토하였는데 현재 밍고라(Mingora)의 스와트 고고학박물관(Archaeological Museum, Swat)과 로마의 國立東洋美術박물관(Museo Nazionale d'Arte Orientale)에 나누어 소장되어 있다. 그 일부가 Faccenna가 펴낸 도록에 수록되어 있다. D. Faccenna, *Sculptures from the Sacred Area of Butkara I*, IsMEO Reports and Memoirs 2-2, 2-3(Rome, 1962-64); Faccenna, *Butkara I(Swat, Pakistan)*, 같은 시리즈 3(Rome, 1980-82), 全 5部(발굴보고서).

60) D. Faccenna, "Excavations of the Italian Archaeological Mission(IsMEO) in Pakistan: Some Problems of Gandharan Art and Architecture," Gafurov 外編, *Central Asia in the Kushan Period*, vol. 1(1974), pp.126-79 (특히 pp. 161, 173-74); Faccenna, *Butkara I*, p.57.

61) Faccenna, *Butkara I*, p.57. 1974년에 발표된 略報告에서는 이 금화를 아제스 2세의 것이 아니라 1세의 것이라고 하였다(Faccenna, "Excavations of the Italian Archaeological Mission in Pakistan," p.161).

62) *Butkara I*, pp.57, 239.

조각유물이 역시 비슷한 시기의 금화와 함께 출토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인 연대관은 일단 받아들일 만하다고 생각된다.⁶³⁾ 그러므로 Lohuizen 이 제시한 논의의 大要에는 큰 영향이 없으리라고 여겨지지만, 이 스와트상들의 연대는 그녀가 Faccenna 의 略報告에 의거해서 제시한 연대보다는 약간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⁶⁴⁾

어쨌든 Lohuizen 이 마투라像과 스와트像, 이 두 그룹 사이에 지적인 형태상, 형식상의 유사성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⁶⁵⁾ 스와트의 삼존상은 통상 중앙에 釋迦牟尼로 짐작되는 인물이 보리수 아래에 禪定の 자세로 앉고 그 좌우에 브라만수행자 모습의 梵天(Brahmā)과 王公形의 帝釋天(Indra)이 합장하는 자세로 서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脇侍인물의 형식과 중앙인물의 자세에 있어서 카파르딘形式과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우리의 주된 관심사인 主尊의 모습을 보면 카파르딘형식像의 경우와 같은 아이디어가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主尊은 후일 간다라에서 통례가 되는 saṃghāṭī 가 아니라 일상 복장의 일부분인 쇼올을 걸치고 있다. 여기서는 쇼올이 카파르딘형식의 像과는 달리 가늘게 포개진 형태로, 그리고 약간 다른 방식으로 둘러져 있고, 따라서 왼쪽 어깨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반신이 노출되어 있다. 이 스와트의 부조들에 새겨진 主尊像의 모습은 이보다 약간 늦은 시기의 作인 馬夫와 愛馬와의 고별 장면을 나타낸 浮彫(도 17)에 나타나는 싯다르타菩薩의 모습과 동일하다. 즉 이 부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싯다르타太子가 출가하여 터번과 장신구를 벗어버린 모습이 바로 스와트의 삼존에 나타나는 주존상의 모습인 것이다.⁶⁶⁾ 이 스와트의 부조상들도 菩薩로서의 釋迦牟尼를 나타낸 것이라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⁶⁷⁾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주존상의 좌우에서 있는 梵天和 帝釋天, 그리고 그 위에 새겨진 菩提樹의 문제이다. 釋迦牟尼를 중심으로 梵天和 帝釋天이 합장 자세로 서 있는 구도는 후일 간다라의 佛傳미술에서 梵天이 成道를 이룬 佛陀에게 설법할 것을 勸請하는 장면(이른바 ‘梵天勸請’)으로 알려진 도상과 유사한 데가 있다(도 18).⁶⁸⁾ 한편 보리수는 카파르딘形

63) 불카라 제 3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은 1990년 페샤와르대학 박물관에서 조사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출토 금화나 연대에 관한 정보는 同 대학 考古學科 파리드 한(Farid Khan)교수와 압둘 레흐만(Abdul Rehman)교수로부터 들은 것이다. 이 유적의 발굴보고가 同 대학 고고학과 출간의 *Ancient Pakistan* 제 7집에 실릴 예정이었으나 아직 구해 보지 못했다.

64) Faccenna 의 약보고는 앞서 언급한 1974년 출간의 “Excavations of the Italian...”이다.

65) 발굴유물 전반을 통해 볼 때 페샤와르지방보다도 북쪽에 있는 이 스와트지방이 北인도의 마투라지방과 밀접한 문화적 유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아마도 당시의 主교통로는, 페샤와르지방을 거치게 되어 있는 현재의 主교통로인 말라칸드(Malakand)패스를 이용하지 않고, 그 동쪽에 있는 카라카르(Karakar)패스나 모라흐(Morah)패스를 통해 부네르(Buner)지방을 거쳐 北인도에 이르는 길이 많이 이용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또 이 지방 주민의 민족적 구성과 성격이 페샤와르 일대의 주민과는 차이가 있었을런지도 모르겠다.

66) 그 밖에 出家時 싯다르타菩薩의 모습을 나타내는 다른 부조들도 참고가 된다: 栗田功, 『ガンダーラ美術』(東京, 1988-90), 제 1권 도 157-63, 168, 177(이 중 몇 점의 眞僞에 대해 필자는 다소 의심을 가지고 있다).

67) M. 카터(Carter)도 이 스와트부조에 표현된 주존이 성도 이전의 菩薩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녀는 이 三尊부조의 주제는 성도 이후의 사건인 ‘四天王奉鉢’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A Gandharan Bronze Buddha Statuette: Its Place in the Evolution of the Buddha Image in Gandhara,” *Marg* 39-4(1988), pp.21-38.

68) cf. I. Lyons와 H. Ingholt, *Gandharan Art in Pakistan* (New York, 1957), pls. 71, 72, 73.

式坐像 위쪽에도 비슷한 모습으로 조각되어 있다. 이 보리수도 스와트부조상의 주존과 카파르딘形式 좌상이 釋迦牟尼가 成道를 이룬 뒤의 장면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할런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간다라의 佛傳미술에서 梵天和 帝釋天이 合掌侍立한 三尊이 모두 ‘梵天勸請’의 장면을 나타내는가에 우선 의문이 있다.⁶⁹⁾ 또한 이러한 三尊구도가 후일 ‘梵天勸請’의 圖像的 祖形이 되었을런지는 모르겠으나 이 시기에 이미 반드시 같은 주제를 나타내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장면은 성도를 이루기 위해서 보리수 아래에서 수행중인 菩薩을 표현하고 그 좌우에 단순히 경배자로서 梵天和 帝釋天을 더한 삼존형식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마투라의 카파르딘形式 좌상에도 보리수의 표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서의 보리수는 菩薩이 성도를 이룰 존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뿐 상 전체에 어떤 敘事的(narrative)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만일 이 좌상에 성도와 관련한 서사적 의미가 부여되어 있었다면, 보리수가 표현되지 않는 것이 통례인 카파르딘形式 입상의 의미는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⁷⁰⁾ 카파르딘形式 좌상이 보리수 밑에 앉는 것, 카파르딘形式입상이 傘蓋 밑에 선 것은 단순히 예배상의 형식이었을 뿐 특정한 서사적 의미를 수반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 아무튼 스와트의 부조상과 마투라의 카파르딘 형식像은 공히 釋迦牟尼가 出家하여 터번과 장신구를 벗은 菩薩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VI

스와트와 마투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釋迦牟尼가 佛陀가 아닌 菩薩의 모습으로만 造像된 시기가 있었던 것은 문헌상 다음과 같은 잘 알려진 律藏의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우리는 說一切有部(Sarvāstivāda)의 律이었던 『十誦律』에 나오는 다음 구절을 주목할 수 있다.

69) 이렇게 합장한 梵天和 帝釋天을 협시로 가진 三尊 부조는 상당히 많은 수에 이른다. 때로는 반복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이 주제의 중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그 모두가 이 주제를 나타내는지는 의문이다. 많은 수가 불전의 특정 주제와 관련되지 않은, 단순히 梵天和 帝釋天을 경배자로 가진 도상형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70) 최근 베라르디(G. Verardi)는 사르나트에서 발견된 Bāla 봉헌 菩薩像이 菩薩이 天上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나타내고 *Mahāvastu* 나 *Daśabhūmika-sūtra* (十地經)에 나오는 菩薩地 思想에 연결된다는 흥미로운 주장을 폈다 (“Avatāraṇa: a Note on the Bodhisattva Image Dated in the Third Year Kaniṣka in the Sārnāth Museum,” *East and West* 35-1/2(1985), pp.67-101). 그리고 그 근거로 산개와 그 받침기둥이 각각 天界와, 그 밑의 땅을 잇는 中間界를 表象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그는 사르나트의 Bāla 봉헌상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상과 전체 카파르딘形式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그의 주장은 카파르딘 좌상에는 적용될 수 없고, 그렇다고 모든 카파르딘 입상에 산개와 기둥이 있는 것도 아니다. 또 그가 경전적 근거로 이용하고 있는 梵本 *Mahāvastu* 와 *Daśabhūmika-sūtra* 는 마투라의 카파르딘像보다도 늦은 시기에 편찬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의 경전 이용에는 텍스트에 대한 비판적 이해가 부족하고 또 텍스트와 미술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도 결여되어 있다.

爾時 給孤獨居士…… 白佛言 世尊 如佛身像不應作 願佛聽我作菩薩侍像善 佛言 聽作⁷¹⁾

(給孤獨居士가…… 부처님께 여쭙었다. “世尊이시여, 佛身像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면, 원컨대 菩薩侍像을 만드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만드는 것을 허락하노라.”)

이 인용문 중 ‘菩薩侍像’은 문자 그대로 ‘菩薩脇侍像’을 뜻하는 것으로서, 어떻게 불상이 없는데 菩薩협시상이 존재할 수 있는지 학자들 사이에 작은 수수께끼가 되어 왔다. 프랑스에서 활약했던 中國출신 불교학자 林黎光은 일찍이 이 ‘菩薩侍像’ 중의 ‘모실 侍’자가 원래 ‘때 時’자를 轉寫할 때 생긴 실수일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그에 의하면 ‘菩薩時像’은 ‘菩薩이던 때(즉 佛陀가 菩薩이던 때)의 像’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⁷²⁾ 佛典에서 ‘佛爲菩薩時’(佛이 菩薩이던 때에)라는 말이 흔한 표현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林黎光의 견해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한다.⁷³⁾ 이 『十誦律』 중의 기록은 불상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던 당시 菩薩조상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하나의 문헌증거는 大衆部(Mahāsaṃghika)의 律이었던 『摩訶僧祇律』 중에 나온다.

有舍利者 名塔 無舍利者 名枝提 如佛生處 得道處 轉法輪處 般泥洹處 菩薩像 辟支佛窟 佛腳跡 此諸枝提⁷⁴⁾

(舍利가 있는 것을 塔(stupa)이라 하고,舍利가 없는 것을 枝提(caitya)라고 하니 佛이 태어난 곳, 得道한 곳, 法輪을 굴린 곳, 涅槃에 든 곳, 菩薩像, 辟支佛의 窟, 佛의 足跡 등이다.)

이 인용문은 菩薩像만을 이야기하고 佛像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아마도 불상의 도상형식이 아직 성립되지 않고 菩薩像만이 佛陀를 상징하는 여러 사물들과 함께 예배되던 당시를 묘사하는 기록으로 보인다.

71) T. 1435: 352 a 6-352 a 9.

72) Lin Li-kouang, *L'aide-mémoire de la vraie loi (Saddharmasmṛtyupasthāna-sūtra)* (Paris, 1949), p.97 과 註 2. 이 자료를 접하게 된 것은 京都 法寶義林 研究所의 위베르 듀르트(Hubert Durt)박사 덕분이다. Durt 박사에게 감사를 표한다.

73) J. Huntington은 위에 인용한 『十誦律』의 부분이 기원전 2-3세기 잠시 불상조립에 대한 禁制가 있었던 것을 나타낸다고 이야기한다(J. Huntington, “The Origin of the Buddha Image: Early Image Tradition and...”, p.27). 그러나 이 부분을 그렇게 이른 시기에 연결하려는 그의 주장은 아무 근거 없는 것이다. 한편 프루던스 마이어(Prudence Myer)는 이 『十誦律』의 구절은 장신구를 단 인물상들이 無佛像시대에 예배되던 상징물들의 좌우에 侍立해 있던 도상에 연유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즉 그렇게 장신구를 단 상들이 후일 大乘에서 보살협시상으로 발전하게 되어, 과거 無佛像시대의 협시인물상들도 후대에 회고적으로 ‘菩薩侍像’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것이다(P. Myer, “Bodhisattvas and Buddhas: Early Buddhist Image from Mathura,” p.133, n. 70). 이 해석의 문제점은 우선 위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菩薩侍像’이 아마도 ‘菩薩時像’의 轉寫上的 실수였을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이 시점 說一切有部の 문헌전통에서 ‘菩薩’이라는 용어가 그가 해석하는 것처럼 大乘적인 의미로 일반화되어 쓰이고 있었다는 주장도 전혀 근거없는 것이다.

74) T. 1425: 498 b 20-498 b 23.

이렇게 說一切有部와 大衆部の 律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헌상의 증거는 마투라의 카파르딘 形式 菩薩像 중 다수가 이 두 部派와 관련을 갖고 있었던 사실과 일치한다. 즉 특정부파에 봉헌되었거나 봉헌자의 소속을 알 수 있는 카파르딘 형식像은 총 9구인데, 이 중 7구가 說一切有部에(표: A-1, 2, 5, 16, B-1, 5, 7), 1구가 大衆部(표: A-7)에 연결된다. 나머지 1구는 法藏部(Dharmaguptaka) 봉헌이었다(표: B-8).⁷⁵⁾

VII

앞서 우리는 마투라의 카파르딘형식像 중에 ‘Buddha’ 또는 ‘Bhagavan Śākyamuni’라고 명각된 상이 2~3예 있음을 언급한 바 있으며, 이것은 예외적인 逸脫현상으로 간주하였다(도 8, 9). 佛傳을 나타낸 부조 2점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을 볼 수 있다. 잘 알려진 <四天王奉鉢圖>(도 19)와 <帝釋窟說法圖>(도 20)가 그것이다. 이 두 사건은 佛傳 중에서 명백히 성도 이후에 일어난 일로써 이 경우에 釋迦牟尼는 이론상 이미 菩薩의 단계를 넘어서서 佛陀인 것이다. 따라서 이 부조들은 카파르딘형식像이 대부분 菩薩이라고 명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에는 佛陀를 나타내고 있다는 주장에 하나의 논거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 부조들에 보이는 카파르딘 형식의 像들은 현존像들 중에서 양식상 비교적 이른 시기, 즉 카니쉬카 즉위 전후의 作으로 볼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히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탈로 간주해 버리기에 무리가 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겠다. 우선 ‘四天王奉鉢’에 관해 이야기하면, 佛陀는 성도를 한 후 첫설법을 위해 바라나시로 떠나기까지 몇 주동안 成道地부근에서 장소를 옮겨가며 經行하고 禪定에 들어 解脫의 즐거움을 음미했다. 이 기간의 마지막에 두 상인이 공양을 하고 四天王이 鉢盂를 바쳤다.⁷⁶⁾ 따라서 이 때까지 佛陀는 성도를 이루기 위해서 보리수 밑에서 수행하던, 즉 보살이던 당시의 복장을 그대로 입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렇게 본다면 菩薩의 복장을 ‘四天王奉鉢’이라는 주제에 끌어다 쓰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佛陀가 帝釋天의 窟에서 三昧에 들었다가 이곳을 찾아온 帝釋에게 설법한 일은 그 時點이 佛傳에서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에 관계된 모든 문헌이 釋迦牟尼를 ‘佛’ 또는 ‘世尊’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성도 이후의 사건으로 간주된 것은 분명하다.⁷⁷⁾ 이 경우는 ‘帝釋窟說法’이라는 주제를 반드시 표현하겠다는 욕구가 있었

75) 이 밖에 마투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다리와 대좌만 남아 있는 坐像(同박물관 소장품 번호 1612)에 Mahāsamghika 라는 銘刻이 있으나 이것이 카파르딘形式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명문은 LL 86).

76) 『太子瑞應本起經』, T. 185, p. 479 b; 『普曜經』, T. 186, pp. 526 c-527 a; Mahāvagga, Oldenberg 本 p. 4; Mahāvastu, Senart 本, III, p. 304 등을 참고할 것.

77) 『太子瑞應本起經』, T. 185, pp. 479 c-480 b; 『長阿含經』, T. 1, pp. 62 b-66 c(『釋帝桓因問經』), pp. 246 b-250 c(『帝釋所問經』); Dīgha-nikaya, no. 21, “Sakkapaṇha” 등을 참고할 것.

고 것처럼 무불상표현에 의존할 수도 있었으나 그러기보다 이즈음 菩薩의 형상으로 쓰이고 있던 카파르딘形式을 다소 무리해서 빌어다 썼을 가능성이 있다.

아무튼 현재 남아 있는 석조 카파르딘형식像들이 이러한 유형으로 만들어진 상들로서 가장 이른 예들을 포함한다고 이야기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카니쉬카 즉위 이전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카트라 출토 좌상(도 3)은 이미 완벽하게 확립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서 그 이전에 상당 기간 이런 형식의 조형이 발전하여 온 결과임을 짐작하게 한다. 이렇게 본다면 마투라에서 카파르딘形式의 菩薩造像은 이미 카니쉬카 기원 적어도 한 세기이전부터 어떤 형태로든 행해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조상전통은 카니쉬카 기원전후 Bāla 봉헌상에서 보는 바와 같은 대규모 석조상의 조립으로 화려하게 꽃을 피웠다(도 2). 사르나트와 쉬라바스티, 코삼비 등의 佛經行處에 공식적으로 이러한 석조 菩薩像들이 봉헌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 아닌가 한다. 그러다가 카니쉬카 기원 제 1세기 중엽 경에 通肩형식의 불상이 본격적으로 수용되기에 이르며, 그 이전 반 세기는 이미 과도기였던 듯하다. 이 시기에는 菩薩이 아닌 佛陀를 조상하려는 욕구가 불교도들 사이에 점증하고 있었다. 菩薩형식, 즉 카파르딘形式이 佛陀 성도이후의 佛傳 敘事에 사용되기도 하였고, 菩薩형식의 像에 ‘Buddha’나 ‘Bhagavan Śākyamuni’와 같은 호칭이 명각되기도 하였다.⁷⁸⁾ 이것은 마치 오늘날의 미술사학자나 불교학자들이 佛(또는 佛陀)이라는 말을 釋迦牟尼가 고타마 싯다르타로서 태어난, 그의 마지막 生 全期間에 걸쳐 별 구분 없이 쓰는 것과 같이, 결국 ‘菩薩’도 ‘成道이전의 佛’이라는 점에서 그냥 ‘佛’이라고 하여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당시 사람들의 관념과 佛造像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는 것일런지 모른다. 菩薩형식의 像에 감히 ‘Buddha’나 ‘Bhagavan Śākyamuni’와 같은 이름을 새길 수 있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在家신도였다는 점은 흥미롭다.

그러나 이러한 일시적인 편법은 확립된 전통으로 발전하지 못하였고, 결국은 예외적인 것으로 남았다. 왜냐하면 카파르딘形式은 본질적으로 菩薩을 나타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도적 시험과 일탈과정을 거쳐 佛陀를 의미하는 通肩형식이 아마도 간다라로부터 마투라에 도입되어 점차 받아들여지고 종내에는 예배대상으로서 카파르딘 菩薩형식을 완전히 대체하게 되었던 것이다(도 4, 11, 22, 5).

78) 이와는 대조적으로 通肩형식의 상에 Bodhisattva 라는 호칭이 명각된 예들이 있어 주목된다. 팔리케라(Palikhera)에서 전래한 문제의 상에는 8년이라는 연대가 명각되어 있다. 따라서 이 상의 연대는 ‘百字省略說’에 의거하여 카니쉬카 기원 108년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조형적 특징을 보면 이 상은 카니쉬카기원 제 2세기 보다는 제 1세기초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P. Myer도 필자와 같은 의견이다. “Bodhisattvas and Buddhas,” p. 139). 그러면 명문에 제시된 존명이 문제인데 Lüders는 이 명문에서 “Sihakasya danam”(Sihaka의 寄進)이라는 구절 뒤에 “Bo”라는 글자(akṣara)를 간신히 읽었다. 그리고 이 “Bo”가 원래 “Bodhisattva”의 일부였을 것으로 추정했다(Mathura Inscriptions, no. 128). 이 글자의 모음표시는 오른쪽으로 수평으로 그려져 있어서, 모음표시가 아래로 수직으로 내려가야 하는 “Bu”의 경우와는 확실히 차이가 있다. 또 단어의 위치상 “Bo”는 존명의 일부분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Lüders의 의견에 어느 정도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카니쉬카기원 초기에 이미 通肩형식이 도입되었으나 마투라의 불교도들은 이것을 Buddha 라고 명각하는 데에 아직 주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 말하자면 이것은 카파르딘形式에 Buddha 라는 존명을 명각하는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이루어진,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 일어나 과도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또 이와 비슷한 예가(카니쉬카기원 51년銘상) 있으나 명문판독에 문제가 있음은 위에서 언급한 바 있다.

VIII

우리가 위의 논의를 통해 입증하고자 한 것처럼 카파르딘形式을 성도 이전의 釋迦牟尼 菩薩을 나타내는 특정한 도상형식으로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많은 수수께끼를 풀 수 있다. 무엇보다 通肩형식 도입 이후 카파르딘形式이 사용된 경우 우리는 그 의미를 쉽게 밝힐 수 있는 것이다. 우선, 앞서 Lohuizen 이 菩薩이라는 말의 의미 한정이 4세기말까지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근거로서 제시한 보드가야에서 출토된 굽타시대 64년, 즉 서기 383년의 연대를 가진 좌상을 들 수 있다(도 7). 이 像은 카파르딘形式의 복장을 하고 있으나 머리 모양만은 이 시대의 다른 불상들처럼 螺髮로 바뀌어 있다. 이 像에는 분명히 Bodhisattva 라는 명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문에 나타난 존명이 무시된채 흔히 佛陀의 像으로 불려졌다.⁷⁹⁾ 우리는 이제 왜 이 像이 다른 굽타시대 像들과 다른 복장을 하고 또 Bodhisattva 라고 명각되어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쿠산시대 후기미술에서 카파르딘 菩薩형식상은 간간히 나타나는데, 특히 돌문의 上引枋에 새겨진 몇 예가 눈길을 끈다. 예를 들어 렉크나우박물관에 소장된 현재 절반이 부서진 상인 방에는 아래 줄 왼쪽에서 두번째 칸에 카파르딘 菩薩형식의 像이 보인다(도 23). 그 위 줄에는 '降魔成道', '初轉法輪', '帝釋窟說法'과 같은 佛傳 장면이 조각되어 있으며, 카파르딘像이 새겨진 줄에는 그 밖에 通肩의 佛좌상, 장신구를 단 통상적 모습의 菩薩像 등이 새겨져 있다.

이 아래 줄의 상들은 원래 過去七佛과 彌勒菩薩의 列坐像의 일부였던 것으로 보통 이해되어 왔다.⁸⁰⁾ 그러나 이러한 추정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 줄 왼쪽 끝의 通肩 불상은 그 위 쪽에 새겨진 터번이 든 龕, 帝釋窟의 모습, 그밖에 장식문양 등을 참조할 때 이 상인방의 중앙을 차지하고 있던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줄에는 원래 양끝의 합장상을 제외하고 일곱 상 밖에는 없었다. 過去七佛과 彌勒 列像의 경우라면 모두 여덟 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현재 남아 있는 네 상 중에는 터번을 쓰고 장신구를 단 통상적인 菩薩形의 상이 둘이나 된다. 過去七佛과 彌勒菩薩의 경우라면 그러한 상은 彌勒菩薩 하나뿐이어야 할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도 이 상들을 종래에 생각해 온 過去七佛과 彌勒의 도상에 연결할 수는 없다. 필자는 우선 合掌像 다음으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오른손으로 施無畏印을 하고 왼손에 水瓶을 든 상을 장차 釋迦牟尼로 이 땅에 오게 될 兜率天上의 菩薩이라고 본다. 보통 수병을 든 상을 彌勒菩薩로 여기고 있으나 마투라의 彌勒菩薩은 통상 아히차트라 出土像(도 13)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머리를 쥐고 터번을 쓰지 않은 형태를 하고 있었고 터번을 쓴 것은 미륵이 아닌 釋迦牟尼가 도솔천상에 있던 때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그 왼쪽에 있는 앞에

79) 명문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Lüders, *A List of Brahmi Inscriptions*, no. 949.

80) 다음 글을 예로 들 수 있다: D. Srinivasan, "Depiction of the Buddha's Genealogy in a Kushan Relief and Related Sculpture," *Indian Museum Bulletin* (1988), p.63.

장식이 달린 터번을 쓰고 禪定에 든 모습의 像은 잠부(Jambu)나무 밑에서 첫 선정에 든 신다르타太子라고 볼 수 있다.⁸¹⁾ 그 다음에 성도 이전 수행 중인 카파르딘形式의 菩薩像, 그 왼쪽으로 같은 자세이나 通肩의 大衣를 입은 성도 이후의 佛陀의 상이 있다. 그러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시간적 전개, 아울러 階位상의 上昇이 표현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남아 있지 않은 왼쪽 절반에 대하여는 현재로서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러나 가운데의 佛을 중심으로 대칭적인 전개가 있지 않았었나 추측해 볼 수 있다.

IX

이상에서 필자의 논의는 대체로 카니쉬카기원 이전과 이후의 각 일 세기, 즉 두 세기의 기간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제 우리의 의문은 이러한 카파르딘 菩薩형식상들이 보다 큰 맥락에서 보면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가 하는 것이다. 필자는 스와트나 마투라에서 생겨난 菩薩형식이 불교미술사상 釋迦牟尼 造像으로서 처음 확립된 형식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상들이 그러한 형식으로 만들어진 상들 가운데 가장 첫 예들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남아 있지 않으나 현존 석조상 이전에 나무나 금속으로 만들어진 상들이 있었으리라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현존상만으로 스와트와 마투라중 어느 쪽에서 먼저 이러한 형식을 창안하였는지 그 시간적 선후를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밝히기는 힘들다.⁸²⁾ 다만 양 쪽이 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菩薩상을 만들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간다라지방에서 쓰여진 카니쉬카 1세의 금화에 通肩형식의 불상이 등장하고 있고 같은 형식의 불상이 이 이전부터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通肩형식의 창안은 간다라지방에서 이루어져 마투라에 도입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菩薩형식이 대두되기 전까지 釋迦牟尼를 인간적인 모습으로 표현하는 전통이 없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필자는 개인적으로 釋迦牟尼를 인간적인 형상으로서 나타내려는 시도가 菩薩형식의 창안 이전까지 全無했었다고는 믿지 않는다. ‘優填王造佛像說’ 같은 것도 후대에 꾸며낸 순전한 전설이라고만 생각하지는 않는다.⁸³⁾ 그러나 그러한 시도들은 연속성을 가지고 전통으로 확립될 수 없었던 一回的인 시도들로 그쳤을 가능성이 크다. 예배의 중심은 역시 스투파와 보리수, 법륜 등의 상징물에 있었다. 그러면 釋迦牟尼를 인간적인 형상으로 표현하는 데에 대한 禁制가 있었던 것인가? 바르후트나 산치 스투파의 佛傳부조에 보이는 無佛像表現은 그러한 것이 있지 않았던가 하는 것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적극적인 금

81) 이 두 가지 보살상의 도상형식에 관해서는 필자가 준비중인 別稿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겠다.

82) 현존 석조상만으로도 스와트와 마투라 사이에서 선후를 가리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와트상의 연대판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Lohuizen은 마투라가 앞설 것이라는 입장이고 M. Carter는 그 반대의 입장이다.

83) 高田修, 『佛像の起源』, pp.10-19 참고.

제의 결과였던가, 또한 금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무슨 이유때문이었는가 하는 점은 생각할 여지가 많이 있다. 불상조성을 적극적으로 금지했다기보다 釋迦牟尼의 상을 만들지 않고 상징물을 숭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었던 것이 마치 금제가 있었던 것처럼 굳어져 버렸던 것은 아닌가? ⁸⁴⁾ 佛傳부조에 나타나는 무불상표현은, 佛傳에 대한 관심이 문학과 미술을 통해 발흥했으나 釋迦牟尼(佛)를 어떻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합의가 미처 없었던 것을 단순히 반영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다가 바야흐로 여러 가지 이유로—Coomaraswamy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박티(bhakti)思想의 대두 등을 포함하여—像崇拜에 대한 욕구와 造像에 대한 요구가 본격화되었을 때 처음으로 하나의 形式이 창안되어 받아들여지고, 마침내 또 하나의 形式(通肩형식)이 만족스러운 佛像 표현의 형태로서 확립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것이 아닌가? 마투라와 스와트에서 창안된 菩薩형식은 이러한 釋迦牟尼 造像형식 발전사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첫 단계의 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⁸⁵⁾

84) 적어도 이 점에서 필자는 無佛像表現, 無佛像時代의 성격을 再考해야 한다는 수잔 허팅턴의 의견과 동감이다. 앞서 언급한 S. Huntington, "Early Buddhist Art and the Theory of Aniconism"참고. 그러나 여쭙서 상징물을 숭배하는 것이 관행화되었던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고,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85)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본고에서 살펴본 釋迦牟尼를 나타내는 최초의 조상형식과 大乘佛敎와의 관계이다. 일찍부터 양자 사이의 관련을 주장하는 의견이 있어 왔고 아직도 이를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학자가 불교학자들 가운데에는 적지 않다. 그러나 적어도 명문상으로 볼 때는 大乘관련설을 입증할만한 증거는 없다. 오히려 초기 마투라像의 명문을 보면 우리가 흔히 大乘이 아닌 小乘으로 간주하는 部派의 이름이 많이 등장한다. 이것을 근거로 대승관련설에 회의적인 학자가 근래에는 많다. 그러나 필자는 이것이 반드시 대승관련설을 부정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선 部派名이 쓰여졌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非대승임을 말해주는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部派와 大乘, 部派와 小乘의 관계는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필자의 입장이다(필자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바 있고("Gandhāran Images of the 'Śrāvastī Miracle': An Iconographic Reassessment,"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1991, pp.159-85), 보다 자세한 논고를 준비하려 한다). 다음으로 소위 小乘의, 보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非大乘의 경전과 비교하여 大乘의 경전에서 불상의 조성이나 숭배가 현저하게 중요시되고 있음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필자는 불상의 기원에 대승불교도가 중요한 역할을 했으리라 믿는다. 다만 양자 사이의 관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문제일 것이다.

From Bodhisattava to Buddha : The Beginning of Iconic Representation in Buddhist Art

Ju-hyung Rhi*

Why are the earliest extant Buddhist icons from Mathurā inscribed “Bodhisattva”? The inscriptions of “Bodhisattva” on what appear to be Buddha image from early Kushan Mathurā have puzzled art historians and Buddhologists. A convenient answer has been that the two terms Bodhisattva and Buddha has been used without much distinction in that early period so that they were even interchangeable. However, the real questions remain: why the word “Buddha” or “Bhagavan Śākyamuni” began to replace “Bodhisattva” several decades later; why the Gandhāran type of Buddha image was adopted in Mathurā around the same time instead of the earlier type usually inscribed “Bodhisattva”. The problem becomes more intriguing, when we consider another question, why did images similar to the first Mathurā ones appear in the Swāt region, north of the Peshawar valley, more or less simultaneously during the pre-Kaniska years? I believe that all these phenomena were closely interrelated. The transition from the early Mathurā type to the Gandhāran type in Mathurā, which has been usually understood in stylistic terms, manifests a significant shift in iconographic meaning, which paralleled the transition from “Bodhisattva” to “Buddha” and its equivalent terms in inscriptions. This paper presents a theory that the earliest Mathurā type with the right shoulder bare (the Kapardin type) and a similar type from the Swāt region were created as distinctive iconographic types for the Bodhisattva, Śākyamuni before the enlightenment.

* Assistant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ory is supported by the following. First, in early Buddhist scriptures the term Bodhisattva is used invariably for Śākyamuni before the enlightenment, and there is hardly any evidence that there was little distinction in usage between Bodhisattva and Buddha in the ancient time. Second, it is unlikely that the Kapardin type images actually represented the Buddha and the inscription "Bodhisattva" was a mere subterfuge to avoid the interdiction against making Buddha images. Third, the majority of the images in the Kapardin type are inscribed "Bodhisattva." Fourth, the dress of the Kapardin figures is probably not a monk's garment, as has often been supposed, but clothes of ordinary men in ancient India. Fifth, the Swāt reliefs we noted above is based on the same idea as the Kapardin type. They both represented the Bodhisattva after the renunciation, taking off his crown and princely attire. Sixth, the famous passages in the *Sarvāstivāda-vinaya* and the *Mahāsaṃghika-vinaya* which refer to the Bodhisattva images reflect the situation in which the Bodhisattva image was worshipped while the Buddha type had not been established yet.

The Kapardin type was the first established one in iconic representation in Buddhist art, even though the extant examples may not have been the first of their kind and not the first of such attempts in iconic representation. The absence of the iconic representation prior to this time should be attributed to the following. First, the focus of the worship was on non-iconic symbols and it was not customary to make and worship images; second, when there arose a more vigorous need in iconic representation, it took considerable time before a type was established and finally another kind, i.e. the Gandhāran type, was admitted as a satisfactory form for representation of the Buddha. The creation of the Bodhisattva types in Mathurā and Swāt represents the initial in phase this develop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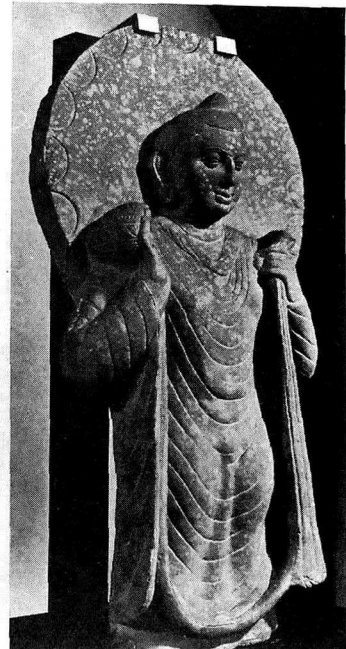
도 1. <佛좌상> 간다라. 2세기. 高52cm.
Takht-i-Bahi 출토. 베를린 인도박물관 소장.



도 2. <菩薩입상(‘菩薩’銘: 일명 ‘승려 발라 봉헌상’)> 마투라. KE(카니쉬카 기원) 3 (AD 2세기 중엽). 高 2.7m. Sarnath 출토. 사르나트박물관 소장.



도 3. <菩薩좌상(‘菩薩’銘)> 마투라. 2세기 전반. Katra출토. 高 69cm. 마투라박물관 소장.



도 4. <佛입상> 마투라. 2세기말. 現高 81cm. 마투라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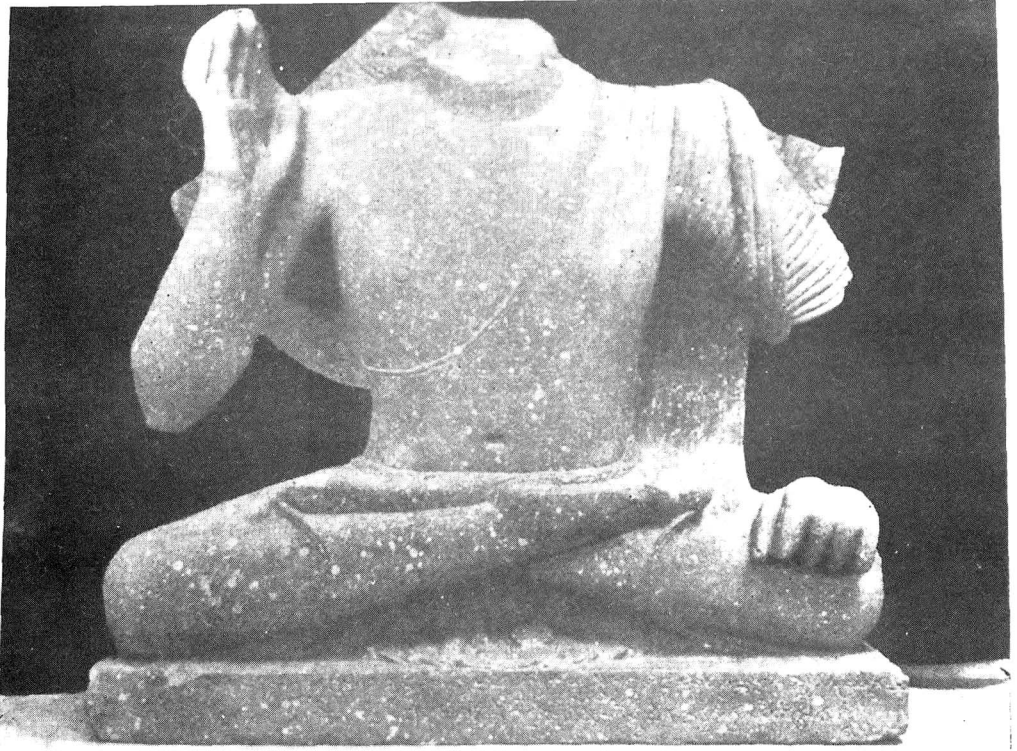
도 5. <佛입상> 굽타시대
115년 (AD 434/5). 高 1.47m
Govindnagar 출토.
마투라박물관 소장.



도 6. <菩薩좌상 부조> 스와트. 1세기~2세기전반
(?). 高 38.8cm. 베를린 인도박물관 소장.



도 7. <菩薩좌상('菩薩'銘)> 굽타시대 64년
(AD 383/4). 高 1.18m, Bodhgaya 출토.
캘커타 인도박물관 소장.



도 8. 〈佛좌상(‘佛’銘)〉 마투라, 2세기말, 마투라박물관 소장.



도 9. 〈佛좌상(‘世尊 佛 釋迦牟尼’銘)〉 마투라, 2세기중엽, 現高 83.8cm, Anyor 출토, 마투라박물관 소장.



도 10. 〈佛(?)좌상〉 마투라, KE51 (AD 2세기말), 高 35cm, Anyor 출토, 마투라박물관 소장.



도 11. <佛좌상(佛銘)> 마투라, KE 122 (AD 3세기중엽), 現高 61cm, 마투라 출토, 마투라박물관 소장.



도 12. <菩薩(?)입상> 마투라, 2세기후반(?), 現高 3m, Ganeshra 출토, 렉크나우박물관 소장.



도 13. <彌勒보살입상> 마투라, 2세기말~3세기초, 高 66cm, Ahicchatra 출토, 뉴델리 국립박물관 소장.



도 14. <彌勒보살입상> 간다라, 2~3세기, 찬디가르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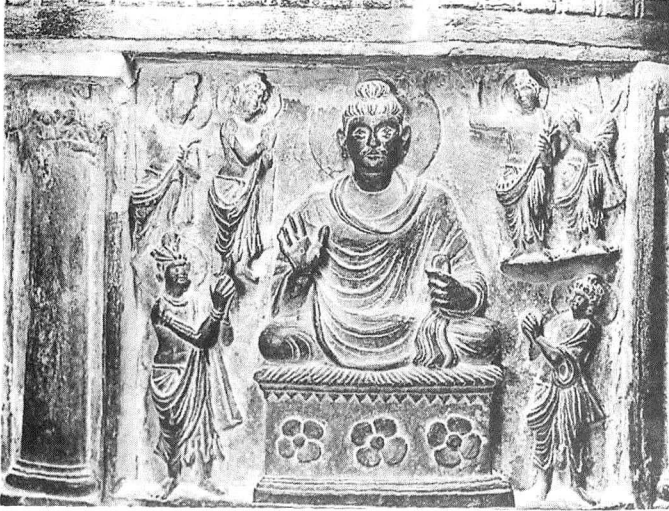
도 15. <菩薩좌상 부조>
스왈트. 1세기후반~
2세기전반(?), 高 68cm.
日本 개인 소장(페샤
와르의 Gai 舊藏).



도 16. <菩薩좌상> 스왈트, 1세기~2
세기전반, 高 50cm. Butkara I 소장.



도 17. <싯다르타의 작별> 간다라. 高 16cm.
Sikri 출토.



도 18. <梵天勸講> 간다라, Sikri 스투파 부조, 高 33cm, 라호르박물관 소장.



도 19. <四天王奉鉢> 마투라, 2세기중엽, 高 48.2cm, Isapur 출토.



도 20. <帝釋窟說法>(부분) 마투라, 2세기중엽, 高 19cm.



도 21. <菩薩좌상(‘菩薩’銘)> 마투라. KE 8년 (AD 2세기중엽).
現高 33cm, Palikhera 출토. 마투라박물관 소장.



도 22. <佛입상> 마투라.
굽타시대 (AD 4세기말).
Katra 출토. 뢰크나우박물관
소장.



70. 佛傳及び諸佛フリーズ. 뢰크나우박물관. 3世紀

도 23. <佛, 菩薩, 佛傳>(부조 상인방). 마투라. 3세기중엽. 高 57cm. 뢰크나우박물관 소장.